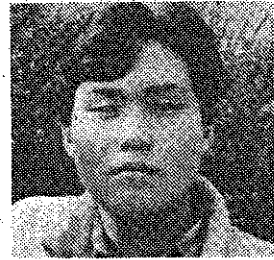


# “투표부정 윗사람이 시킨 일”

## 이일병 어머니 아들석방 호소



이원섭 일병

“군에 입대한 뒤에도 매주 전화를 해 ‘어머님 몸이 좀 어떠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계대 취직해 잘 모실테니 어렵지 않으세요’라며 어미를 걱정하곤 착하다 착한 녀석인데...”

15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군 도읍 마석4리 경춘연립 7동 1호 이원섭(21) 일병의 집에서 구속 소식을 듣고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고향을 이끌고 국방부를 찾았으나 면회 불허로 아들을

이미 지난 10일 아들이 국회의 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국방부 헌병대대 영창에 구속됐다는 통지서를 받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벌써 2주째 아들로 부터 소식이 끊겨 불길한 예감 속에서 가슴을 태웠던 고씨에게 이 일병의 구속은 상상도 하기 힘든 큰 충격이었다.

삼형제의 막내인 이 일병은 만형 인섭(31)씨가 택시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집

없는 등 건강이 몹시 나빠 이 일병이 군 부제자투표 부정 폭로에 남달리 상당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

## 구속 통보받고 한때 실신...민주단체 도움에 용기

나지 못하고 돌아온 어머니에게(52)씨가 답답한 마음을 누지 못한채 울먹이고 있었다. 어머니 고씨는 지난 14일 오후 집 근처로 찾아온 국군통신장부 소속 인사계라고 자신의 반을 밝힌 한 상사를 만나 아들의 구속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한다.

“아들이 앞뒤 모르고 일을 저러 자기무담을 자기가 봤다” 구속 사실을 통보한 이 상사 말을 듣고도 “어미가 쓰러질 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원섭이가 그럴 리가 절대 없다”며 그를 끝내 믿지 않으려 했던 고씨는 저녁 무렵 국방부로부터

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방학 때면 마석 일대의 비닐하우스나 경운기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태기도 했다. 또 연휴 때는 빈 사무실 경비보조 업무를 맡기도 하는 등 용색한 집안 형편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애썼던 착실한 학생이었다. 이 일병은 또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일 줄 몰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보려면 항상 ‘109호 막내아들’을 찾았다고 이 일병 가족을 위로하려 온 이웃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고씨는 심장이 약해 신경을 많이 쓰면 쓰러져 며칠씩 몸져

난데없는 이 일병의 구속으로 낙담한 가운데서도 가족들은 민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재야 민주단체가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이 일병을 적극 돕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들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다는 생각에 커다란 위안을 받고 있었다.

“국민학생도 대리투표는 불법이란 사실을 다 아는데 윗사람이 시키지 않았다면 원섭이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국방부는 원섭이를 풀어줘야 합니다.” 어머니 고씨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하는 말이다. <남양주=박종언 기자>